

유명인사와 함께하는 힐링 프로그램 성료

임실군, 관촌면 도화지도예문화원서 두 달간 이병로 도예가와 진행

임실군이 관촌면 도화지도예문화원에서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두달에 걸쳐 진행된 '유명인사와 함께하는 힐링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사업은 유명인사와 함께 마을과 지역을 알리고 도농융합 상생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전라북도 생생마을 플러스 사업에 공모해 (사)임실군마을기구기협의회에서 추진했다.

유명인사는 이병로 도예가로 원광대 도예과와 산업미술대학원을 졸업하고 홍익대학교 대학원 디자인공예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4번의 개인전과 다수의 전시에 참여했으며, 전국공예품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또한 최근 2021 교통미술상 수상으로 현대 공예가로서의 작업도 뛰어났지만, 전통적인 제작방식을 고수하며 가장 한국적인 아름다움과 정서가 잘 표현된 작품이 호평을 받으면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작가로 평가받기도 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관내 주민 및 도예에 관심 있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생을 선발하여 도자기 생활자기, 도자기 화병 및 화분, 도자기 인테리어 소품 등을 제작하는 창조 활동으로 진행됐다.

지난 8월 24일을 시작으로 9월 28일까지 총 6회차로 진행되었으며, 프로그램 참여 기간 동안 교육생들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작품들을 향후 도화지도예문화원에서 전시(2022.10.29.~11.5.)하여 지역주민과 도시민

과의 관계 형성뿐 아니라 임실지역 문화예술 콘텐츠를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관심 분야에 대한 소문과 지식이 막대한 도시민들은 이번 기회가 전문가와 직접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더 나아가 아름다운 임실의 관광지 및 먹거리에 대해서도 더 알아보고 싶다면 이번 프로그램에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심민 군수는 "지역 내 유명인사가 갖고 있는 전문성으로 지역민뿐만 아니라 도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농촌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어 사람 찾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는 '2022 전라북도 관광벤처 공모전'을 통해 전북관광 혁신성장에 기여할 총 7곳의 관광벤처기업을 최종 선정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혁신성장 이끌 관광벤처 7개사 선정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상생협약 체결... 공모사업 선정 통해 사업 진행 선정 기업엔 지원금·기업별 맞춤형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혜택 제공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는 '2022 전라북도 관광벤처 공모전'을 통해 전북관광 혁신성장에 기여할 총 7곳의 관광벤처기업을 최종 선정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도내 혁신적 관광기업 발굴, 지역관광산업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시행, 올해 재단 국비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설립된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의 첫 번째 사업이다.

올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관광벤처 7곳 중 지역상생 관광기업은 한옥을 활용한 위케이션 프로그램 개발(청계구리)이며, 지역혁신 관광기업은 집 보관 및 배송서비스(청계구리),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영상 아카이브 플랫폼(스프미디어), 스마트 기술 기반 통합 관광 앱(브라이트), 지역 캐릭터 활용 관광 플랫폼 구축(로컬아이), 원도심 로컬관광 해설부어(크리터션), 메타버스 활용 지역관광 상품 개발(연을 담다)

등 6곳이다. 선정된 전북관광벤처기업에는 사업화 지원금 외에도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내 사무공간 및 회의실 지원, 기업별 맞춤형 교육, 판로개척 및 투자유치 등 기업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혜택도 제공된다.

지역상생 관광기업으로 선정된 청계구리 이준석 대표는 "풍부한 문화유산 및 생태자원 등을 보유하고 있는 전라북도에서 위케이션 프로그램 등 지역 특화형 관광 콘텐츠 개발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했다"며 "이번 상생협약을 계기로 전북지역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과 우리 기업의 비전처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시행한 2022년 국비공모사업에 선정, 진행되는 사업이다.

/정은성 기자



전주교대, 상생 음악회 개최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지난 7일 화학당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상생(相生) 음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상생 음악회는 대학의 지자체 연계 교육·문화·예술 콘텐츠 개발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공연과 예술적 경험 향유를 제공하기 위해 이 대학 음악교육과 최은아 교수의 기획으로 진행됐다.

전주교대가 주관하고 서울대학교 교수 최은식 예술감독을 주축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현악기 교수들이 함께하는 비바체(Vivace) 단원들이 연주했다.

연주는 모차르트 플루트 4중주곡 제3번, 파가니니 칸타빌레 바이올린과 기타 연주, 슈베르트 현악 5중주곡 D.956 프로그램으로 이뤄졌다.

이날 공연은 약 100여 명의 관객이 참석했다. 특히 초등학생 관객들은 연주가 끝날 때마다 무대에 선 연주자들에게 뜨거운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한편, 상생 음악회 2차 공연이 11일 저녁 7시 전주교대 화학당에서 열린다. 입장료는 무료다.

기타 공연 문의는 전주교대 음악교육과(063-281-7160)로 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신임 대표이사에 이경운 前 청와대 문화비서관이 임명됐다.

이경운 전북문화관광재단 신임 대표이사 임명

"전북 유무형 자산이 그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할 것"

전북문화관광재단 신임 대표이사에 이경운 前 청와대 문화비서관이 임명됐다. 임기는 2024년 10월 6일까지 2년이다.

이경운 신임 대표이사는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이 전북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전문기관으로서 민선 8기 문화·예술·관광 도정방향에 맞춰 전북다움을 담아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북도의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우려와 지적에 대해서는 "지역 문화

예술계의 원로, 청년예술인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다양한 예술현장을 찾아가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며, 전북의 역사와 전통, 문화를 알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조직혁신과 사업운영에 있어 지적된 부족한 면을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고 도민들의 요구사항과 의견을 담은 다양한 정책 개발에 충실히 임하겠다"면서 "전북이 가진 유무형의 자산이 그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은성 기자

"도내 축제서 문화누리카드 사용하세요"

전북문화관광재단, 장수 한우량사과랑축제서 사용 가능

전북문화관광재단은 10월 개최되는 도내 대표축제에서 문화누리카드 사용이 가능하다고 알렸다.

이에 따르면 진안홍삼축제, 임실치즈축제, 부안곰소갯길축제와 27일부터 장수에서 열리는 한우량사과랑축제에서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각 축제에서 사용되는 토권 또는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행사장 내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스티커가 붙은 곳에서 이용 가능하다.

재단은 문화누리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축제의 대표상품 또는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스

티커가 붙은 식음료 및 문화체험 부스에서 문화누리카드 결제를 지원하고 있다.

재단 류상록 문화예술진흥본부장은 "풍요로운 가을을 맞아 도내 여러 축제에서 문화누리카드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며, "올해 남은 도내 축제에서도 문화누리카드 이용자가 함께 누리고 만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www.jbct.or.kr) 또는 재단 문화사업팀(063-230-7451)에 문의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제 17회

세계인의 입맛, '순창에 담다'

순창장류축제

2022. 10. 14. FRI ~ 10. 16. SUN 3일간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 일원 (주:발효테마파크)

온라인프로그램

네이버 순창장류축제

홈페이지 + SNS 연계프로그램

라이브커머스

축제 킬러콘텐츠

도전! 다함께 순창꽃추장 만들자!

순창 장류 떡볶이마을

"新" 순창고추장 임금님 진상행렬

장류소스 숯불구이 체험존

10.14 개막식

강문경 김다현 안다은 주현미

10.16 폐막식

송대관 강진 한혜진 윤수현

서울차량 운행노선

교통상황에 따라 혼잡할 수 있으니, 순창공설운동장 주차장에 주차 후 서울차량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구간: 일품공원 ▶ 희망병원 ▶ 순창경찰서 ▶ 국민체육센터 ▶ 축제장

*2 구간: 일품공원 ▶ 주공아파트 쉼터 ▶ 군청 ▶ 국민체육센터 ▶ 축제장

주관/주최 순창군 / 순창장류축제추진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 한국관광공사